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언론인 인식유형 연구*

김흥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황은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성 유형을 발견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 구조 탐구에 유용한 Q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로 기자들이 갖는 시민저널리즘의 신념, 가치, 태도 등 가치체계로 구성된 진술문 24개의 Q 표본을 구성하고 P 표본으로는 성별, 경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 27명의 기자에게 Q 분류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성 구조는 모두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상호보완형’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과 기존 저널리즘과의 상호보완성을 보여주었다. 제2유형은 ‘대안형’으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며 동시에 기존 저널리즘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제3유형은 ‘가능형’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며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기자들은 언론 위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통저널리즘의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이 신문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신문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형태가 상호보완형, 대안형, 가능형 등의 개념으로 도출된 것은 시민저널리즘이 단지 하나의 저널리즘 행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사회심리적인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08.

** doctorq@hufs.ac.kr

*** ojhwang@segye.com

미디어 환경에 입각해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주제어: 시민저널리즘, Q 방법론, 주관성 연구

1. 서론

신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 신문의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언론의 등장으로 인한 인쇄매체로서의 신문 산업 위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있어 신문의 영향력과 기능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연구에 나타나 있는데, 독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정치 참여의 감소는 신문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Putnam, 1995, pp.65~78).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은 미국의 지역신문이 직면한 이상의 두 가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부분 미국 신문들은 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경영위기가 초래되었으며 동시에 미국 시민들이 공동체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가 많이 발견된 사실은 시민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다(황용석, 2001, 117~118쪽).

우리나라의 신문 산업도 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신문 구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11월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1996년 69%에 달했던 신문구독률은 2001년 51.3%로 떨어지다가 2006년 34.8%로 크게 하락했다. 수용자의 매체 신뢰도에서도 신문은 방송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2006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매체별 신뢰도는 TV(66.6%), 신문(18.5%), 인터넷(12.8%), 라디오(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가 말해주듯 시장규모 감소와 독자의

신뢰도 추락은 신문 산업이 위기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전역의 1,500여 개에 이르는 일간 신문 가운데 322개 신문이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했으며 이들 시민저널리즘 보도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조사는 위스콘신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및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Communication and Democracy)의 루이스 프리드랜드(Lewis Friedland) 교수팀이 이 기간에 시민저널리즘 관련 프로젝트 651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애초 신문운동으로 시작된 시민저널리즘은 이후 공영방송, 상업방송, 공영라디오방송, 상업라디오방송 등으로 퍼져 나갔다(백병규, 2003).

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은 미국언론의 산물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미국의 전통, 시민사회의 토론 및 참여문화, 그리고 공동체 자치주의 등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어온 일종의 언론운동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안병길, 2003, 106쪽). 예를 들어 미국은 언론시장 구조와 저널리즘 전통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여론이 존중되고 있지만 한국은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중앙 중심으로 움직여 언론 역시 지방 여론보다는 중앙뉴스에 비중을 두고 중앙 집중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저널리즘을 적용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김민남, 1998, 58쪽).

한국에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2004년 4·15총선 기간 중 부산일보에서 위와 같은 개념의 실천운동을 펼쳐 주목을 끌었지만 언론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환영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민저널리즘이 사회 책임론적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다거나 기존의 캠페인성 기획·특집 시리즈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주된 반응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저널리즘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제기한 미국의 학자들은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이 갖는 복잡성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뉴스생산을 위한 뉴스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이 시민저널리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McDevitt, 2003, pp.154~1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저널리즘은 신문 위기의 시대에 독자와 언론,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축으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시민저널리즘은 전통 저널리즘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 시작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라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저널리즘 운동인 동시에 언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저널리즘의 본격적 도입과 실천 필요성에 주목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기자들의 시민저널리즘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특징과 합의점 등을 이해함으로써 시민저널리즘의 구체적 현안과 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시민저널리즘의 등장

시민저널리즘은 미국 사회에서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저널리즘은 흥미위주의 상업주의를 추구하고 정치 관련 보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치 엘리트나 전문가 위주로 보도해왔다. 그 결과 정치나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했으며 민주주의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즘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시민저널리즘의 탄생은 대체적으로 공화당의 조지 부시(George H. Bush) 후보와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Michael Dukakis) 후보가 대권 경쟁에 나섰던 1988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촉매역할을 했다(Eksterowicz, Roberts & Clark, 1998, pp.74~95). 실제로 1988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중 불과 50.1%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1924년 이래 최악의 투표율이었다.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 약화는 곧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언론이 선거와 같은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에서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걸쳐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었다.

1982년 1,730개이던 신문사는 1997년 1,509개로 15년 동안 2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2003년 실시된 미국의 ‘노동통계청 소비자 지출조사(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Expenditure Surveys)’에 따르면 신문구독률은 35세에서 44세 세대주를 기준으로 볼 때 1985년 70%였으나 1995년 65%에서 2001년 43%로 급락했다. 즉 1985년 이후 10년 동안 5%의 감소 추이를 나타내던 신문구독률이 1995년부터 7년 동안 무려 22%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언론인과 학자들이 언론의 신뢰 회복과 ‘공중생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시민저널리즘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김정기·이종수, 1997, 79~81쪽). 그 첫 실험은 시민저널리즘 운동의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위치타 이글(*The Wichita Eagle*)의 편집인 데이비스 메리트(Davis B. Merritt)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8년 대선 이후 실시된 캔자스 주지사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선정한 12개의 이슈를 후보자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한 결과 이 신문이 배포된 지역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 수준 높게 나타났다(Merritt, 1998, pp.4~10).

요약하면 시민저널리즘은 메리트와 같은 언론인이 저널리즘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실험적인 시도와 로젠(Rosen, 1994)과 같은 학자들이 공중과 언론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의 신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독자의 외면에 따른 수익의 감소와 그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던 신문사 경영진 및 언론관련 재단의 지원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2) 시민저널리즘의 개념과 이론적 기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시민저널리즘이 실천적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가 하나의 언론

모델 내지 언론사조로 틀을 갖추었지만 이론적 정리 혹은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저널리즘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시민저널리즘의 개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Merritt, 1996, p.6).

시민저널리즘 정의에 대해 아이오와 대학의 아서 체리티(Arthur Charity, 1995) 교수는 언론이 시민의식을 작동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메리트는 단순히 뉴스 전달 기능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중생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로젠 교수는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김병철, 2006, 28쪽).

이를 종합해볼 때 시민저널리즘의 핵심은 시민을 저널리즘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즉 이러한 시민저널리즘의 정의와 관련해 캐럴 다이커스(Carol Dykers)는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과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 시민기반 저널리즘(citizen-based journalism)으로의 구별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저널리즘은 시민의 공공생활을 강조한 로젠과 메리트가, 시민저널리즘은 시민에 무게 중심을 둔 에드워드 포우이(Edward M. Fouhy)가 선호했다. 어쨌든 학자들은 주로 공공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퓨센터(Pew center)¹⁾의 후원을 받는 실행 언론사나 언론인들은 시민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한편 시민저널리즘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는 공중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과 존 듀이(John Dewey)의 오랜 논쟁에서 촉발됐는데(Friedland, 2001) 리프만은 인간 본성의 실상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슈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견해를 갖기 어렵다고 말하며 일반인(공중)의 한계 및 언론의 전문적 기능을 주창한다. 반면 듀이는 일반인의 긍정적인 역할과 대중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결국 공중이란 공통된 문제점을 찾아내 대화를 통해 해결책까지 찾아야 한다는 듀이의 주장은 시민저널리즘의 이론적 근거

1) 시민저널리즘을 위한 퓨 센터(The 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는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구로서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들을 교육하고 각종 연구기금을 조성해 시민저널리즘의 활성화에 기여했음.

가 되는 셈이다.

시민저널리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또 다른 학자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이다.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핵심을 이루는 것을 자발적 토대 위에서 이뤄진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결사체라고 주장하면서 비경제적인 결사체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 독립적 언론매체를 들고 있다. 즉, 언론이 공공영역을 이루는 시민사회의 제도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차재영, 2002, 449~453쪽). 하버마스의 주장은 때마침 실시된 1988년 미국 대통령선거 보도에 실망을 느낀 공중에게 전통저널리즘의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언론은 상업성의 굴레 속에서 그 본질적 속성인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잃어버리고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줄어든 것(김민남, 1999, 108쪽)이 사실이다. 하버마스가 주장한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저널리즘의 철학적 근거의 마지막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론을 들 수 있다. 허친스 위원회(The Hutchins Commission)가 1940년대에 상업적이고 무절제한 언론의 반작용으로 제시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은 슈람과 시버트(Fred S. Siebert & W. Schramm) 등에 의해서 사회적 책임이론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론은 주어진 자유를 언론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그 자유를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Merritt, 1995, pp.45~50). 사회적 책임이론이 등장한 이래 많은 학자와 언론인은 미국의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다양한 개념으로부터 시민저널리즘의 목적과 지향점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Christians, 1999; Charity, 1995; Merritt, 1995). 첫째, 시민저널리즘은 시민 중심의 이슈 보도를 통해 시민과 언론의 간격을 좁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론장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Christians, 1999). 둘째, 시민저널리즘

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의 문제에 개입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시민저널리즘의 궁극적 목표는 공공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에 나서는 시민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사를 중심의제로 삼아 시민생활과 밀착하며 보도과정에 시민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참여적 시민을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시민저널리즘의 가능성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시행된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사례를 보면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Wisconsin State Journal*)의 선거 캠페인 ‘우리가 유권자다’(1994년), 사바나 모닝뉴스(*Sabana Morning News*)의 ‘노인문제’(2000년) 등과 같은 성공적인 기획 기사들을 들 수 있다(박찬수, 2004). 시민저널리즘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2003년 8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자들의 의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노력일 것이다. 2003년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언론대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미국 언론인들의 72%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시민저널리즘의 취지에 찬성한 바 있다. 이는 시민저널리즘이 이미 미국 언론인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반현, 2006, 19~20쪽).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저널리즘 이론이 소개된 바 있으나 현장에서 먼저 출발한 미국과는 달리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언론에 의한 실천사례는 드물다. 이는 공공영역 보도의 한 방법으로 공공캠페인이 국내 신문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캠페인이 국내 언론에서 활발하게 실시되는 배경은 형식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양태를 보이는 한국 언론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진우, 2002, 2쪽). 주로 지방 언론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된 현실 속에서 시민저널리즘의 유용성은 중앙 언론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독자의 인식과 관심, 참여는 기자나 신문사의 적극적인 개혁의지로 이끌어낼 수 있다. 부산일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직전 부산지역 18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시민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슈조사는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슈의 풀림현상을 막기 위해 전국·부산·선거구 이슈로 나눠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김관중, 2004, 51쪽). 국제신문은 2005년부터 시민기자가 올린 기사를 토대로 탐사보도 기능을 강화해 쌍방향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예가 있으며, 강원일보는 2006년, 전남일보는 2007년부터 시민기자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시민기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1주일에 1개 면을 할애해 시민기자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자사 홈페이지에 ‘시민기자 코너’도 개설하고 있다. 또한 대구의 매일신문에서는 2008년 시민기자가 만든 삶의 현장과 지역 소식을 고정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중앙지 중 세계일보는 2006년부터 매주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식 시민저널리즘을 우리나라 언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미국 언론의 성공사례인 시민저널리즘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이 차용해야 할 내용과 지향점은 바로 시민저널리즘의 운동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자들이 갖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수용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태도와 믿음 등 주관성은 향후 시민저널리즘의 수용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는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창안한 Q 방법론(Q-methodology)을 채택하고 있다. Q 방법론이란 그동안 과학세계에서 배제되었거나 간과되어왔던 인간의 주관적 영역, 예를 들어 태도, 신념, 확신,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며,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 Q 방법론은 연구자에 의해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만드는’, ‘가설을 발견해가는’ 이른바 가설추론적(abductory) 방법론으로(김홍규, 2008, 13쪽)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시작되어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형성된 유형을 발견하고 나아가 작동이론(working theory)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Q 방법론은 여러 사람들에 걸쳐 어떤 속성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R 연구방법과는 전혀 반대로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김홍규, 2008, 1~7쪽). 즉,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R 방법론에 비해 한 개인이나 소집단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화보다는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주관성의 구조에 차이를 지니고 있다.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은 기자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표준이 아니다.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개념 구성과 이론, 법칙은 매우 적실성이 높으며 그만큼 현실적용에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인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가치나 태도, 신념과 같은 주관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Q 방법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1) Q 표본과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Q 표본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가치 체계로 구성된 진술문으로 형성됐다. 이 연구의 Q 표본은 크게 기자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가치, 태도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Q 표본의 구성은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저널리즘 관련 자료들 중에서 다양하게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기간(2006년 9월~2007년 10월) 동안 시민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기술되어 있는 언론기사, 보

<표 1> Q 분류 분포

진술문수	2	3	4	6	4	3	2
점수	-3	-2	-1	0	+1	+2	+3

고서, 논문을 포함해 일차적으로 진술문 100여 개를 수집했으며 언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의 면담을 실시해 수집한 진술문들을 편집한 후 최종적으로 24개의 Q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부록 1> 참조).

또한 본 연구는 성별, 경력기간을 적절히 고려했으며 중앙 일간지와 월간지, 지방 일간지, 방송사 등에 근무하는 총 27명의 기사를 최종적인 P 표본으로 선정했다(<부록 2> 참조).

2) Q 분류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는 P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Q 표본을 분류화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이것은 개인이 복잡한 주제나 이슈 또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하는 단계로 응답자들로 하여금 진술문을 읽은 후 그것을 일정한 분포 속에 강제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즉 본 연구는 Q 표본으로 선정된 각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응답자들이 읽고 긍정(+), 중립(0), 부정(-)으로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가장 긍정의 진술문에서 가장 부정의 진술문 순으로 최종 정리하게 했다(<표 1> 참조). 분류가 끝난 후 양끝에 있는 각 2장의 카드에 대해선 분류 이유를 듣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분류작업은 2007년 10월 30일에서 11월 22일까지 24일간 이루어졌으며, 각 응답자의 Q 분류 및 심층인터뷰에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Q 소트 자료는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4. 연구결과

1) Q 유형의 형성

기자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Q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각 유형들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인식 상태에 따라서 유사한 의견, 태도 등을 가진 사람들로 묶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Q 소트들의 단순한 평균이라기보다는 복합적 계슈탈트, 즉 행태적 전체(patterned whole)로 이해할 수 있다(김홍규, 2008).

전체 P 표본 가운데 제1유형에 속한 사람은 10명, 제2유형은 8명, 제3유형은 9명으로 분류돼 나타났다(<부록 2> 참조).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3개 유형의 설명변량은 각각 35%, 12%, 8%로 나타나 전체 변량의 53.12%를 설명하고 있다(<표 2> 참조). 또한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다소 높게 나타난 유형 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variance)

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eigen values	9.4798	3.3139	1.5483
variance	.3511	.1227	.0573
cumulative variance	.3511	.4738	.5312

<표 3> 인식 유형별 상관관계

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1.000	.552	.572
제2유형	.552	1.000	.383
제3유형	.572	.383	1.000

2) 일치항목의 분석

일치항목(consensus item)이란 각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험자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유형에서 공히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다시 말해 시민저널리즘을 전통적 저널리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의 주도적 역할을 이미 예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의 참여는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들로부터의 대항 세력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시민저널리즘으로 인한 언론의 독립성 우려는 모든 기자들에게는 단지 기우일 뿐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세 유형 모두 시민저널리즘을 단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상업적 수단이라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그 성향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것을 일축함으로써 시민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 각 유형의 일치항목(±1.00 이상 보인 항목 중심)

진술문	z-score
8. 시민저널리즘이 찬반양론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만 기존 저널리즘과 대립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1.71
16.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언론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저널리즘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30
21. 시민저널리즘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다.	1.01
24. 시민저널리즘은 여론조사 전문가와 시민에게 의존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1.05
20. 시민저널리즘을 시행하는 신문은 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1.33
1. 시민저널리즘은 독자 수 격감을 우려한 언론의 상업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34

이를 통해 기자들은 시민저널리즘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고 시민 중심·이슈 중심의 보도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 시민저널리즘을 전통저널리즘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하는 데 공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형 1: 상호보완적 저널리즘

제1유형은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과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저널리즘 방식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시민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사작성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기존 저널리즘 방식과 대립적 관계를 유도하기 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표 5> 참조).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예컨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환경을 벗어나 정보의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이 대두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식의 저널리즘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한계를 지니 언론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화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시민저널리즘의 수용과 절충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시민저널리즘으로 인한 우려, 예를 들어 객관성의 훼손이나 언론의 독립성 침해, 감시기능의 저하, 보수성의 고착화 등에 대해서 부인함으로써 기존 저널리즘과의 절충과 보완 가능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시민저널리즘을 유일한 대안적 방법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저널리즘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시민저널리즘이 시민의 정치참여 의식과 투표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복잡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와 처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의제 중심과 시민참여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저널리즘의 전문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언론인에 의한 맥락적 이해와 처방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표 5> 제1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1.00 이상 보인 항목 중심)

진술문	z-score
8. 시민저널리즘이 찬반양론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만 기존 저널리즘과 대립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1.89
5. 시민저널리즘을 위해선 새로운 기사 작성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5
21. 시민저널리즘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다.	1.11
17. 시민저널리즘은 시민의 정치 참여의식과 투표율을 높이지만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처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1.08
16.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언론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저널리즘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05
4. 시민저널리즘은 기존의 전통저널리즘이 고수해온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문제가 있다.	-1.05
7. 시민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체 언론관이다.	-1.09
1. 시민저널리즘은 독자수 격감을 우려한 언론의 상업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11
20. 시민저널리즘을 시행하는 신문은 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1.27
24. 시민저널리즘은 여론조사 전문가와 시민에게 의존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에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	-1.48
3. 전통적인 뉴스 가치가 시민저널리즘에서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49
11. 시민저널리즘은 언론 고유의 감시기능을 포기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1.54

할 전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은 경력이 2년인 29세의 여기자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기사 쓰기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틀에 얽매이지 않는 쓰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꼽으면서 보도되기 전까지 많은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3년의 경력을 가진 49세의 남자 기자는 시민저널리즘은 다양한 의제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통저널리즘의 방식과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소외 계층의 알권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저널리즘은 상업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력 1년인 26세의 여기자는 보도단계에서 시민의 정치의제를 심층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시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기사작성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민저널리즘은 충분히 보완적 저널리즘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보수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적임을 강조했다.

제1유형은 시민참여에 의한 시민들의 이슈결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주로 이들은 전통저널리즘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임을 주창하고 있다.

4) 유형 2: 대안적 저널리즘

제2유형은 앞에 설명한 상호보완적 저널리즘형과 많은 점에서 유사성이 높지만 시민저널리즘이 보완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대체 언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보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의 개념이 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표 6> 참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종전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호교류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은 필연이며 이때 민주주의의 위기 요소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저널리즘은 소수 엘리트 언론인이 주도해가는 계몽주의적 언론으로는 다양한 사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고,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 민주주의 실행에 기여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한다. 시민저널리즘은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획기적인 저널리즘이며 우려되는 역기능이란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의 고유기능인 감시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며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진취적 성향을 띠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게 시민저널리즘의 수용은 기성언론에 노정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대안적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하

<표 6> 제 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1.00 이상 보인 항목 중심)

진술문	z-score
16.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언론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저널리즘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52
8. 시민저널리즘이 찬반양론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만 기존 저널리즘과 대립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1.48
13. 미래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방 소통이 아닌 상호교류이므로 시민저널리즘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31
21. 시민저널리즘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다.	1.22
7. 시민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체 언론관이다.	1.07
23. 시민저널리즘은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시민을 미화하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많은 영웅들을 양산할 수 있다.	-1.01
20. 시민저널리즘을 시행하는 신문은 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1.15
1. 시민저널리즘은 독자수 격감을 우려한 언론의 상업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25
6. 시민저널리즘은 새로운 것이 없는 기존 언론의 포장술일 뿐이다.	-1.55
11. 시민저널리즘은 언론 고유의 감시기능을 포기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1.75

였다. 이들은 전통적 저널리즘이 상업성을 우선시하며 따라서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민 위주의 민주적 참여를 저해하여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저널리즘이야말로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해내는 대체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믿고 있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경력 15년차인 44세의 남자 기자는 시민저널리즘은 시민이 뉴스의 생산자로 나서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언론과 차별화된 언론형태를 보일 수 있고, 자본과 정치권력으

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역시민을 미화하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많은 영웅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했다. 35세의 경력 5년차인 여기자는 기존 저널리즘은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나 시민저널리즘은 쌍방향성을 띠므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시민저널리즘이 기존 저널리즘의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으며, 수용자의 참여 확대는 지면의 변화를 초래할 뿐 새로울 것이 없는 포장술일 뿐이라는 점을 부정했다. 37세 남자로 경력 8년차인 기자는 시민저널리즘이 지역이슈를 더욱 용이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보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와 언론 고유의 감시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강하게 반대했다.

제2유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생활에 보다 밀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도출하여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시민저널리즘의 본질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5) 유형 3: 기능채택적 저널리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세 번째 유형도 앞선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그 유용성과 수용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순기능을 중심으로 점진적 채택을 강조하고 있다(<표 7> 참조). 따라서 시민저널리즘과 기존 저널리즘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기존 신문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뉴미디어가 지니는 수용자의 능동적 역할 수행으로 인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종적 위상이 참여적 특성을 지니는 횡적 위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체와 저널리즘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대체적 저널리즘의 개념과 함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핀 후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용해야

<표 7> 제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1.00 이상 보인 항목 중심)

진술문	z-score
8. 시민저널리즘이 찬반양론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만 기존 저널리즘과 대립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1.75
16.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언론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저널리즘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31
7. 시민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체 언론관이다.	1.05
24. 시민저널리즘은 여론조사 전문가와 시민에게 의존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에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	-1.06
6. 시민저널리즘은 새로운 것이 없는 기존 언론의 포장술일 뿐이다.	-1.32
20. 시민저널리즘을 시행하는 신문은 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1.58
1. 시민저널리즘은 독자수 격감을 우려한 언론의 상업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1.65
13. 미래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방 소통이 아닌 상호교류이므로 시민저널리즘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5

한다는 ‘기능채택적’ 저널리즘을 주창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우려될 만한 시민저널리즘의 역기능이란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제시의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공공의 문제는 다층적이며 사회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만큼 저널리즘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시민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을 펴는데, 현실적으로 신문과 방송은 지면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천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편집전략은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구독자 수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언론사의 수익구조는 이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혹은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제한적이며 기능적인 면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이며 합리적 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경력 16년차인 40세 남자 기자는

시민저널리즘은 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민저널리즘이 기존 언론과 독자들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보아 독자 수 격감을 우려한 상업적 술수라고 한 점을 비판했다. 38세 남자인 경력 8년차 기자는 저널리즘에 입각한 종합적 능력인 객관성-중립성-균형성 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시민저널리즘이 심층성과 대안 제시를 기대하기엔 이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떤 편집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 시민의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한된 지면으로 시민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이 낮다고 한 점을 비판했다. 46세 남자이며 경력 18년차인 기자는 전문 저널리스트의 일방적 보도가 아닌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자 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상업적인 술수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부라는 점은 부정했다.

제3유형은 시민저널리즘의 역기능이 우려되지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합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신념, 가치, 태도 등 주관성의 구조 유형을 발견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여 이론적 가설들을 추론하는 데 있다. Q 소트는 물론 심층면담과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관련이론을 통해 발견하고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요인으로 모두 세 가지 유형을 발견했는데, 제1유형은 시민저널리즘을 기존의 저널리즘 방식과 절충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상호보완적’ 저널리즘의 개념이며, 제2유형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의 언론매체가 처한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시민저널리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대안적’ 저널리즘이며,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원칙적으로 시민저

널리즘의 수용을 찬성하지만 현재의 편집체계상으로 이를 적용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가며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기능채택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둘째, 이상의 세 가지 요인 모두는 시민저널리즘 채택의 필요성을 몇 가지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유형 모두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높은 합의성을 갖는데, 이는 곧 단순한 편집상의 기술적,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수용자를 더 이상 수동적인 정보소비자로 머물지 않게 하며 정보와 뉴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역할 부여를 하므로 기존의 신문 기능은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구독자 수의 현격한 감소는 신문사의 재정적 타격과 함께 그 기능도 매우 축소되었는데, 시민저널리즘의 구현은 시민의제 중심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영역에 시민이 보다 잘 개입하고 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시민저널리즘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유도하며 저널리즘 자체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Schaffer, 2004). 본 연구는 국내의 기자들도 신문의 위기와 관련해 시민저널리즘의 수용 내지는 보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곧 지역사회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시민저널리즘의 도입은 단순한 저널리즘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의 언론매체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관중 (2004). 지역언론의 공공저널리즘 적용 가능성 연구: 부산일보 ‘시민패널-후보자 토론’ 보도분석.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김민남 (1999).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병철 (2006). 『시민사회와 시민저널리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정기·이종수 (1997). 『선거 TV 토론과 시민저널리즘』, 97-01.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김흥규 (2008). 『Q 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찬수 (2004.5.14). 시민저널리즘 꽃피니 참여언론 ‘열매’. 『한겨레』.
- 백병규 (편). (2003). 미국 시민저널리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미디어월드와이드』, 제52호.
- 반 현 (2006). 시민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언론중재』, 제26권 2호, 19~20.
- 안병길 (2003). 『시민속의 언론 공공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진우 (2002). 시민저널리즘과 공공캠페인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 신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차재영 (2002). 지역신문의 성장과 공공영역의 구축: 충북 옥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 제46권 3호, 449~453.
- 홍원영 (2004). 『공공저널리즘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온라인 신문과 지방지, SO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황용석 (2001). 시민저널리즘. 『관훈저널』, 제42권 3호, 117~118.
- Charity, A. (1995). *Doing Public Journalism*.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ristians, C. G. (1999). The common good as first principle. In T. L. Glasser (ED).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ksterowicz, A. J., Roberts, R. & Clark, A.(1998).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Knowledg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3, Issue 2, pp.74~95.
- Friedland, L. (2001.7). Public Journalism and the New Information Commons. 『신문과 방송』.

- McDevitt, M. (2003). In Defence of Autonomy: A Critique of the Public Journalism Critiqu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155 ~164.
- Merritt, D. & Rosen, J. (1994). *Public Journalism; Theory and Practice*. Dayton. Ohio: Kettering Foundation.
- Merritt, D. (1995). Public Journalism: Defining a Democratic Art. *Media Studies Journal*, 45 ~50.
- _____ (1996. Jan/Feb). Public Journalism & Public Lif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annetteer*, 6.
- Rosen, J. (1994.11.11). Public Journalism as a Democratic Art. A presentation to fall seminar at American Press Institute, Reston, Virginia.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pp.65 ~78.
- Schaffer J. (2004.9.13). The Role of Newspapers in Building Citizenship. at the 5th Brazilian Newspaper Congress, São Paulo, Brazil.

(투고일자: 2008.05.30, 수정일자: 2008.07.11, 게재확정일자: 2008.07.21)

부록

〈부록 1〉 Q 표본

진술문

1. 시민저널리즘은 독자 수 격감을 우려한 언론의 상업적 슬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제한된 지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저널리즘은 적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3. 전통적인 뉴스 가치가 시민저널리즘에서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4. 시민저널리즘은 기존의 전통저널리즘이 고수해온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문제가 있다.
 5. 시민저널리즘을 위해선 새로운 기사 작성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시민저널리즘은 새로운 것이 없는 기존 언론의 포장술일 뿐이다.
 7. 시민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체 언론관이다.
 8. 시민저널리즘이 찬반양론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만 기존 저널리즘과 대립되기도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9. UCC는 시민저널리즘의 좋은 예로 미래 언론의 방향을 시사해준다.
 10. 시민저널리즘은 오보 가능성을 늘 갖고 시작한다.
 11. 시민저널리즘은 언론 고유의 감시기능을 포기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12. 시민저널리즘의 목표와 관행이 기존의 저널리즘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13. 미래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방 소통이 아닌 상호교류이므로 시민저널리즘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4. 시민저널리즘은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보다 민주화된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15. 시민저널리즘은 그 특성상 신문보다 방송에서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16.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언론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저널리즘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7. 시민저널리즘은 시민의 정치 참여의식과 투표율을 높이지만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처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18. 시민기자는 언론의 법적·윤리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기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19. 시민저널리즘은 지역사회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이다.
 20. 시민저널리즘을 시행하는 신문은 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

-
21. 시민저널리즘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다.
 22. 시민저널리즘을 구현하더라도 선정주의적 보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3. 시민저널리즘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시민을 미화하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많은 영웅들을 양산할 수 있다.
 24. 시민저널리즘은 여론조사 전문가와 시민에게 의존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에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
-

〈부록 2〉 P 표본의 유형별 인자기중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순서	인자기중치	성	나이	근무지	근무부서	근무연한
유형 1	1	1.5956	여	26	기자협회	미디어부	1
	3	.2355	남	60	센트럴데일리타임스(美)	정치부	25
	5	.6965	남	30	전남매일	사회부	6
	6	.1864	남	47	연합뉴스	논설실	21
	7	1.4434	남	40	광주일보	정치부	14
	10	1.0482	여	30	환경TV	산업부	6
	11	.7108	남	26	월간중앙	특집부	1
	19	1.8002	남	49	한국일보	사진부	23
	20	1.4942	남	40	매일신문	편집부	13
	21	1.8047	여	29	매일신문	편집부	2
유형 2	9	.8963	여	23	월간중앙	특집부	1
	12	.9839	남	39	문화일보	전국부	13
	14	1.3065	남	31	문화일보	전국부	5
	22	1.8853	여	35	기자협회	미디어부	5
	24	1.6237	남	37	기자협회	미디어부	8
	25	2.2803	남	44	매일신문	편집부	15
	26	.7239	남	42	문화일보	전국부	17
27	.9872	여	28	K-TV	취재담당	3	
유형 3	2	1.7310	남	40	센트럴데일리타임스(美)	특집부	16
	4	.7683	여	32	센트럴데일리타임스(美)	편집부	6
	8	.6626	여	29	교통방송	매거진부	5
	13	.4601	남	41	문화일보	전국부	13
	15	1.1195	남	33	문화일보	사회부	6
	16	.0092	남	34	한국일보	문화부	5
	17	1.1555	남	46	세계일보	독자부	18
	18	.8803	남	33	한국일보	문화부	3
	23	1.5863	남	38	기자협회	미디어부	8

How Do the Journalists Perceive the Civic Journalism?

Hung-Kyu Kim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Divis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Jung Hwang

Doctoral Candidate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Divis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owadays, newspaper industry faces a crisis in terms of two aspects: First, in this multi-channel era, it has competed with the online journalism appearing in many digital media. Second, with the decrease of numbers of reader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oles of newspaper has to be changed accordingly. The concept of civic journalism emerged as a solution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in how journalists perceive the civic journalism. The Q-methodology was adapted to identify the factors composing of the belief, values, attitudes, ideas, and opinions toward the civic journalism. Total of 24 Q-sample (statements) were sorted by 27 P-sample (journalists) who were selected by their gender, years of service, and the like. The Qanal program finally produced 3 factors that were interpreted and named as follows: Factor I, the Complimentary Journalism, the civic journalism would fulfill the functions that traditional journalism has neglected. Factor II, the Alternative Journalism induc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areas. Factor III, the Functional Journalism, emphasizing dysfunction of the civic journalism.

Key words: civic journalism, Q-methodology, subjectivity study